

세계 경제 리뷰

2026년 6월 · 봄 합동 점검호 · Vol. 2026 No. 2

기준일 2026-06-15

글로벌 매크로 · 1면 톱

전쟁의 그늘, 세계 성장
코로나 이후 최저로

경제부 종합 · 공개정보 분석

세계은행은 2026년 세계 성장률을 2.5%로 제시했다 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. 2025년 2.9%에서 한 단계 더 내려앉았고, 2027년에도 2.8%에 그쳐 2010년대 평균을 0.4%p 밑돈다. 중동 분쟁이 에너지값·물가·차입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결과다.



▲ 글로벌 시장 데이터 (자료 시각화)

중동 분쟁이 에너지값을 끌어올리며 2026년 세계 성장률을 끌어내렸다. IMF·세계은행·OECD가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.

2.5%

2026 세계 성장률 (세계은행, 시장환율 기준)

▲ IMF(PPP) 3.1% · OECD 2.9% — 가중방식별 편차

안쪽 면 미리보기

물가	세계 물가 4.0%로 반등 — 에너지가 건인
유가	브렌트유 평균 \$94 — 전년比 +36%
걸프	걸프 경제 성장률 0%대로 급랭
신흥국	개도국 3.6% — 팬데믹 이후 최저

글로벌 · 리드 스토리

세계 성장, 2.5%로 주저앉다

2025

2.9%

전년 실적

2026

2.5%

코로나 이후 최저

2027

2.8%

완만한 회복 전망

둔화의 해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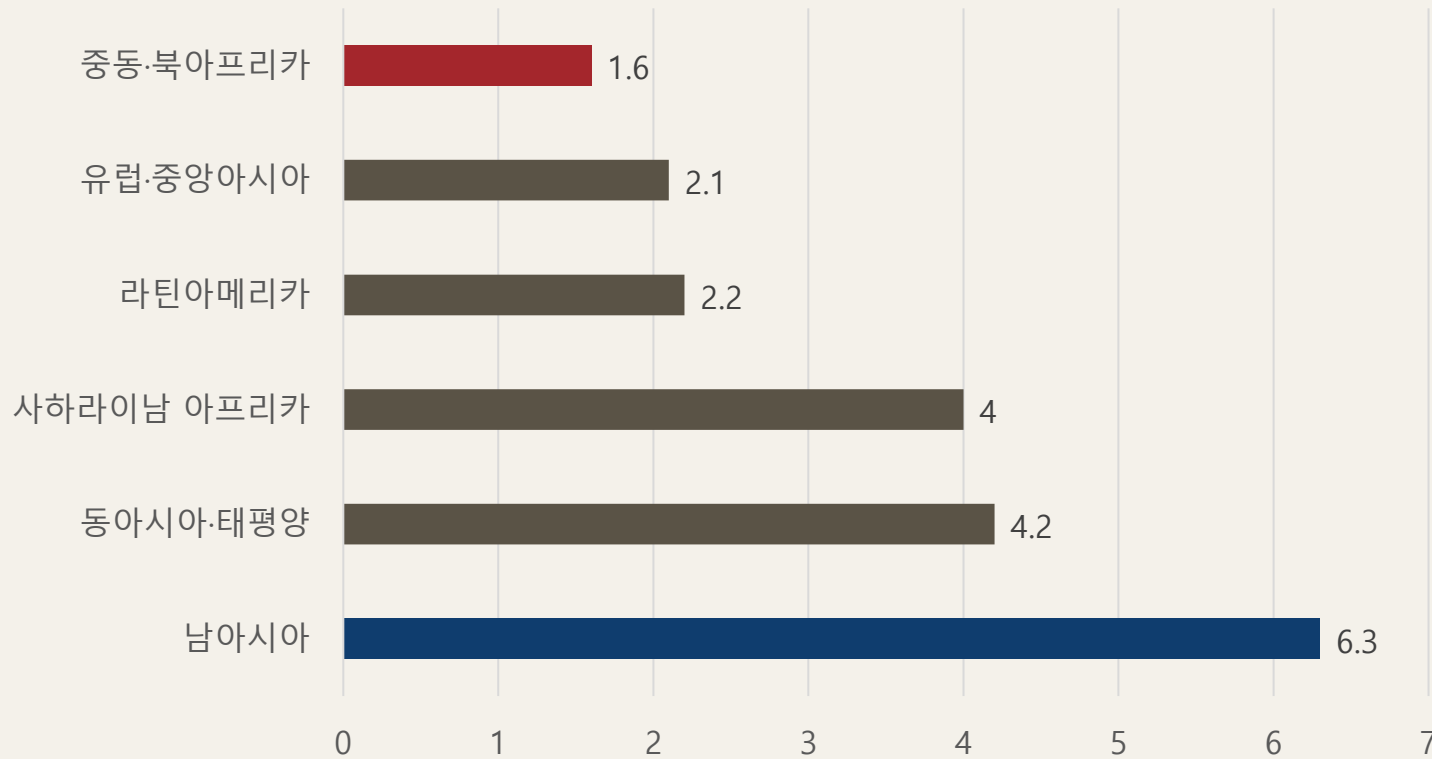
세계은행은 2026년 세계 성장률을 2.5%로 제시했다 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. 2025년 2.9%에서 한 단계 더 내려앉았고, 2027년에도 2.8%에 그쳐 2010년대 평균을 0.4%p 밑돈다. 중동 분쟁이 에너지값·물가·차입비용을 동시에 끌어 올린 결과다.

같은 세계, 다른 숫자

같은 '세계 성장률'도 기관마다 다르다. IMF는 구매력평가(PPP) 가중으로 3.1%, 세계은행·OECD는 시장환율 가중으로 2.5%·2.9%를 제시한다. 가난한 고성장 신흥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PPP 방식이 수치를 끌어올린다 — 방향은 같고 절대값만 다르다.

■ 지역 데스크

남아시아 6.3% 질주, 중동 1.6% 급랭



* 세계은행 GDP(2026.6) 지역별 신흥·개도국(EMDE) 성장률 전망(2026, %).

데스크 노트

남아시아가 6.3%로 가장 빠르고, 분쟁 한복판의 중동·북아프리카가 1.6%로 가장 느리다. 걸프 산유국 성장률은 2025년 3.9%에서 2026년 0%대로 급랭했다가 2027년 이후 5%대 회복이 전망된다.

주요국 (2026)

미국 **2.0–2.4%**
OECD 2.0 · IMF 2.4

중국 **4.4%**
OECD

개도국 **3.6%**
세계은행 · 팬데믹 이후 최저

■ 마켓 · 에너지

물가 4.0% 반등, 브렌트유 \$94

물가

4.0%

2025년 3.3%에서 반등 — 에너지가 견인

유가

\$94

브렌트유 평균(배럴) · 전년比 +36%

하방 시나리오

1.3% / 4.4%

분쟁 확대 시 성장/물가 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

에너지가 다시 물가를 흔든다

세계 물가는 2025년 3.3%에서 2026년 4.0%로 반등한다. 브렌트유는 평균 배럴당 94달러로 전년比 36% 높다. 분쟁이 확대되는 하방 시나리오에서는 성장 1.3%·물가 4.4%까지 악화한다.

데이터 데스크

같은 세계, 다른 숫자 — 기관별 비교

기관 (발표)	2026 세계성장	2027 세계성장	가중방식
IMF · WEO 2026.4	3.1%	3.2%	PPP 가중
세계은행 · GEP 2026.6	2.5%	2.8%	시장환율
OECD · 잠정 2026.3	2.9%	3.0%	시장환율

같은 '세계 성장률'도 기관마다 다르다. IMF는 구매력평가(PPP) 가중으로 3.1%, 세계은행·OECD는 시장환율 가중으로 2.5%·2.9%를 제시한다. 가난한 고성장 신흥국에 더 큰 비중을 두는 PPP 방식이 수치를 끌어올린다 — 방향은 같고 절대값만 다르다.

왜 다른가

PPP 가중(구매력평가)은 고성장 신흥국에 더 큰 비중을 뒤 세계 평균을 끌어올린다. 시장환율 가중은 선진국 비중이 커 수치가 낮게 나온다. 방향(둔화)은 셋 다 같다.

2027 회복 전망

IMF 3.2% · WB 2.8% · OECD 3.0%

세 기관 모두 2027년 완만한 회복을 전망한다 — 단, 중동 분쟁이 제한적이라는 가정 아래.

회복은 가정에 종속된다. 에너지·물가·차입비용 세 갈래가 여전히 하방을 누른다.

IMF (PPP)

3.2%

2027 세계성장

세계은행 (시장환율)

2.8%

2027 세계성장

OECD

3.0%

2027 세계성장